

삼성전자, 800만화소 카메라폰 공개



삼성전자가 800만화소 카메라폰 '이노베이트(INNOV8·i8510)'를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강력한 카메라 기능을 가진 800만화소 카메라폰 '이노베이트'를 25일중국에서 열리는 'WCG(World Cyber Game) 2008' 예선대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화소 카메라폰이 최근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능을 갖추면서 고화소 카메라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부터 본격 출시된 500만화소 카메라폰에 이어 삼성전자는 800만화소 카메라폰을 업계 처음으로 8월 출시하여 고화소 카메라폰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노베이트'의 카메라 기능은 전문가급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간다. 우선 기존보다 두 배 밝은 듀얼 파워 LED 플래시 기능을 탑재,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 G센서를 이용해 파노라마샷 촬영시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찍히는 오토 파노라마샷, 인물 촬영 시 눈을 감을 경우 재촬영을 하는 블링크 샷 등 첨단 기능을 탑재했다.

멀티미디어 기능도 크게 강화됐다. DivX, WMA, H264 등 다양한 영상 코덱을 지원, 파일 변환 없이 재생이 가능하며 듀얼스피커와 Dns(Digital Natural Sound Engine) 3D 사운드 엔진을 내장해 실감나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7.2Mbps 속도의 HSDPA, 인터넷 풀브라우저를 지원하며 옵티컬 마우스, A-GPS, 3D게임엔진, 블루투스 2.0, 16GB 대용량 내장메모리 (MP3파일 4000곡, 100분 짜리 영화 10편), 최대 16GB까지 확장할 수 있는 외장메모리 등 첨단 기능을 탑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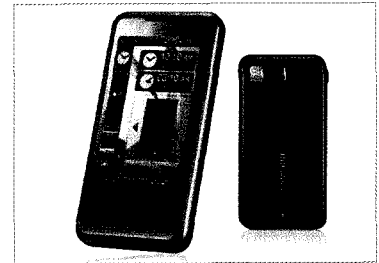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최지성 사장은 "전문가급 카메라 기능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고화소 카메라폰으로 카메라폰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휴대폰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800만 화소폰인 '이노베이트'는 WCG 2008 공식 게임폰으로 선정됐으며, 8월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SA에 따르면 올해 500

만화소 이상 카메라폰의 판매량이 총 3,800만대에 이르고 2009년에는 8,300만대 2010년에는 1억3,600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 옴니아' 싱가포르에서 인기몰이



삼성전자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전략폰인 '삼성 옴니아 (Omnia, SGH-i900)'가 첫 출시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단숨에 히트 휴대폰으로 떠오르며 글로벌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옴니아'가 6월 21일 싱가포르 출시 이래 4주 연속 판매 매진을 기록하며 7월 말에 2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휴대폰 시장의 월 판매량이 평균 13만대임을 감안하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옴니아의 판매 비중만 15%이상 차지하는 것은 스마트폰 단일모델로 최고의 판매량이다.

삼성전자 주요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 MP3 앱, '서태지 컴백 이벤트' 개최	2008/07/28
2	삼성전자, 800만화소 카메라폰 공개	2008/07/24
3	삼성전자, 일부 업무용 A3 레이저 프린터 리콜	2008/07/19
4	삼성전자, 프로젝터 신제품 2종 출시	2008/07/17
5	삼성전자, 스마트폰 '울트라메시징', '멀티터치' 출시	2008/07/16
6	삼성전자, 인텔 센트리노2 탑재 노트북 출시	2008/07/15
7	삼성전자, 'Future Mobile Forum 2008' 개최	2008/07/10
8	삼성 컬러레이저복합기, 돌풍 거세다	2008/07/07
9	삼성전자, 親환경 예코폰 '환경마크' 획득	2008/07/03
10	삼성 MP3, 사용자 중심 온라인 서비스 '이모디오' 런칭	2008/07/01

LG전자 주요뉴스 (www.lg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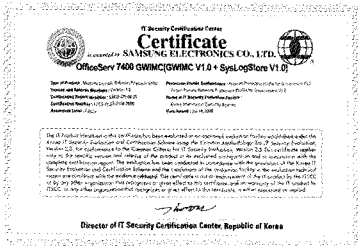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휴대용 스타일리시 외장 HDD 출시	2008/07/21
2	LG전자, 인텔 센트리노2 탑재 노트북 3종 출시	2008/07/16
3	LG전자 가전, 호주서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2008/07/14
4	LG전자, 긴급재난 구조, LG전자 사회봉사단 출정식	2008/07/11
5	LG전자, '썩통' LG 에어컨, 또다시 기승	2008/07/10
6	LG전자, 터치폰 누적판매량 700만대 돌파	2008/07/09
7	LG전자·LG텔레콤, 시장장애인에 사랑의 목소리 전한다	2008/07/08
8	LG전자, '타임머신'으로 올림픽 유혹	2008/07/07
9	LG전자, 전면 터치폰 '데어(Dare)'로 미서 승부	2008/07/03
10	LG전자, 파리에서 글로벌 HR 컨퍼런스 개최	2008/07/02

삼성전자 싱가포르 법인 윤기홍 상무는 “출시하자마자 초도 물량이 모두 판매되며 품귀 현상을 빚었고 700명 이상이 예약주문까지 해 놓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될 경우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 옴니아’는 7월 22일 이태리를 시작으로 유럽에도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인 ‘커뮤닉아시아 (CommunicAsia) 2008’에서 처음 해외에 공개된 ‘삼성 옴니아’는 윈도우 모바일 6.1을 채용하여 PC에 버금가는 강력한 성능 구현과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햅틱 UI를 적용한 프리미엄 폴더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 IP 사설교환기, 국제 CC 인증 획득



※ CC (Common Criteria, 공동평가기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발·생산되고 있는 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것

삼성전자의 IP 사설교환기 (IP-PBX, IP-Private Branch eXchange) ‘오피스서브™ 7400’이 통신 장비로는 국내 최초로 국제 CC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제 CC는 정보 보호 기능을 가진 제품의 보안성을 측정하는 국제 평가 기준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25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어 해외 공공기관 대상 수출을

위한 필수 인증이다. 한국에서는 국제 CC를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하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삼성전자는 보안 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기업 통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기업 시장 뿐 아니라 국가·공공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피스서브™ 7400’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위 보안 등급인 EAL3+등급 CC 인증을 획득하여 보안 부문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오피스서브™ 7400’은 SIP 기반으로 원거리 지역간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도 지원하며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망을 보완하여 침입 차단 시스템, VPN, 보안 감사, 시스템관리 등 정보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 ‘통신·보안 통합 장비’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 기능 개발부터 인증 획득까지 약 2년 7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며 “이번 국제 공인 인증 획득으로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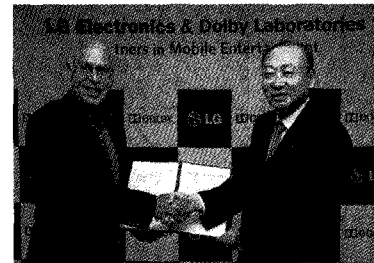
[용어설명]

■ 사설 교환기(Private Branch eXchange) 기업이나 구내의 전화, 팩스 등 내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 교환기로 전화국의 교환기를 소형화한 것임. 가장 기본적으로 내선이나 외선과의 통화, 외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구내의 내선전화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 IP-PBX (IP-Private Branch eXchange : IP 사설교환기) 기존 PBX는 기업내에 설치되어 아날로그 방식, 혹은 디지털방식의 내선 통화를 지원하여 내선 간 약 1.2Km 내 전화 통신만 가능했었음. (국선 제외) IP PBX는 인터넷 망을 활용한 IP 통신이기에 무료로 해외 본, 지사간 원거

리 내선 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LG전자, 돌비(Dolby)사와 휴대폰 음향 분야 전략적 제휴



LG전자가 미국 돌비(Dolby Laboratories)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영화관이나 홀시어터 수준의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는 휴대폰 개발에 나선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30일 여의도 LG트윈 타워에서 곽우영 LG전자 MC연구소장(부사장)과 스튜어트 마철클(Stuart Mitchell) 돌비 영업담당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력 및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돌비의 휴대폰 전용 모바일 사운드 솔루션을 탑재해, 음악, 동영상, 모바일TV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5.1 채널의 고품질 입체 음향으로 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돌비 모바일 사운드 솔루션을 탑재한 LG전자의 프리미엄급 멀티미디어폰에는 돌비사의 로고가 표기되는 등 양사는 공동 마케팅에도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독일 슈나이더사와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분야 제휴에 이어, 이번 돌비사와의 음향 분야 제휴로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솔루션 회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휴대폰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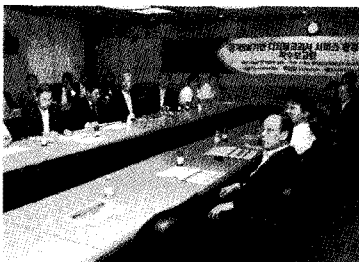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965년 설립된 돌비사는 세계적인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돌비 서라운드 스테레오', '돌비 디지털 (AC-3)' 등 영화, 방송, 홈시어터, 컴퓨터, 자동차에 활용되는 서라운드 사운드와 고품질 오디오 전문업체로 유명하다.

이날 돌비사의 스텐트 미첼 영업담당 부사장은 "돌비의 축적된 멀티미디어 기술과 LG 전자의 앞선 휴대폰 기술이 만나 소비자에게 고품격 모바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MC연구소곽우영 부사장은 "동영상, MP3 등 멀티미디어 기능 발전과 더불어 휴대폰 음향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돌비와의 전략적 제휴는 향후 멀티미디어폰의 성패를 가를 휴대폰 음향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G CNS,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환경 구축 사업 착수



LG CNS(대표 신재철)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이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개소프트웨어기반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환경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단말기·전자칠판 등의 하드웨어와 리눅스·유비쿼터스 학

습시스템 등의 공개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선 통신을 결합한 제반 환경을 구축한다.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과서·참고서 등의 내용은 물론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안정화 사업과 2010년 확산 사업 등을 거쳐 지역차 없는 평등한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축소가 가능하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기반의 유비쿼터스 교육 기술 축적을 통해 해외 진출 등 관련업계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현진 LG CNS 부사장은 "LG CNS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과 학습관리시스템 분야에서 GS인증을 받았으며, '한글과 컴퓨터'와 손잡고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유비쿼터스 학습 단말기 개발을 완료했다"며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실적 쑥쑥



LG전자가 차별화된 현지 밀착 마케팅과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아지역에서 전년동기 대비 35% 신장한 20억불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생활가전 제품은 프리미엄 가전 라인인 헬스케어 제품군의 판매량 증가와 상업용 에어컨의 수주가 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

TV 매출도 대폭 증가, PDP TV는 전년 동기 대비 58%, LCD TV는 프리미엄 제품인 스킨렛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89% 성장했다. 또 모니터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 50% 성장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LG전자는 올해 43억불, 2010년에는 60억불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LG전자가 중아지역에서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 차별화된 전략에 기반한 현지 밀착 마케팅과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 현지인재 육성 등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중아지역은 7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소득수준, 종교, 문화 등의 차이가 크다. 이에 LG전자는 중아지역을 산유국, 동부지중해, 남아프리카 등 6개권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권역 여성 소비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추세를 고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LG쿠킹 아카데미(LG Cooking Academy)'를 개설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요리, 건강, 웰빙 등에 대하여 주5회 무료 강연을 진행한다. 이 아카데미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대외활동이 제한되어 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에게 여가선용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현지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편, 중아지역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제도상 외국인이 직접 판매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딜러와의 관계가 사업의 승패를 가름하는 경우가 많다.

LG전자는 중아지역 공략의 핵심인 딜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딜러 컨벤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현지인들이 음악과 무용을 좋아하는 점을 감안, 아티프 아슬람 등 최고의 인기가수들을 초대해 페스티벌 형태의 컨벤션을 열었다. 이에 반해 시리아의 딜러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유흥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시리아 최고의 호텔인 포시즌 호텔에서 컨벤션을 진행해 만족도를 높였다.

LG전자는 중아지역에서 프리미엄 제품군인 헬스케어 제품군과 스칼렛 TV등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아지역은 최근 경제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건강, 웰빙 등 삶의 질(質)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알러지를 예방하는 스팀 트롬 세탁기, 공기를 정화하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지방을 제거하는 솔라돔 컴팩트 오븐 등 헬스케어 제품을 앞세워 중아지역에서 'LG 헬스케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현지 거래선, 언론인은 물론 150여명의 의사들을 초청하여 헬스케어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는 'LG 헬스케어 컬렉션'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터키를 시작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르단 등에서 스칼렛 LCD-TV의 론칭 행사를 가졌으며, 프리미엄 이미지에 걸맞은 특색 있는 행사로 현지 언론과 거래선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올해 미스 아프리카인 탄지 코엣츠(Tansey Coetz)가 스칼

렛 TV 광고 영상에서 걸어나와 스칼렛 TV를 소개하고, 요르단에서는 요르단 내 톱 10 모델들이 화려한 패션쇼를 펼친 후 스칼렛 TV를 관객들에게 공개하는 이색적인 행사를 가졌다.

LG전자는 지난 6월 두바이 최고 명문인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 in Dubai)에 'LG마케팅 스쿨'을 개설했다.

'LG마케팅스쿨'은 대학총장, 마케팅학과장 등 최고의 강사진이 현지 LG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동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아메리칸 대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김기완 중아지역본부장(부시장)이 동대학 MBA과정에서 특별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4월 시리아 최고의 공과대학인 다마스쿠스 공과대학내에 'LG 에어컨 연구소'를 개설했다. 교수 및 학생들은 이 연구소에서 에어컨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우수 학생들은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LG전자 김기완 중·아지역본부장은 "LG전자가 중아지역에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지 특화전략에 핵심을 두고 고객 인사이트 마케팅을 통해 중·아 지역을 석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맞불작전' 주효



국내 LED 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일본 니치아의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을 내

린 데인 서울반도체의 '맞불작전'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심결은 니치아의 특허 공세에 시달려온 국내 업계에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스스로 보유한 특허를 앞세워 역공을 펼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LCD 패널 특허 기술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일본 샤프의 맞소송,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파이컴과 미국 폼팩터의 특허 분쟁 등도 비슷한 선례다.

이번 심결에도 불구하고, 특허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결이 나자마자 당장 니치아는 강력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허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반도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니치아로서 이번 심결에 승복하거나 수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경우 삼성·LG로 대변되는 국내 고객사 기반(시장)을 점차 상실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특허 전문가는 "니치아 입장에선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어야만 서울반도체의 LED 칩을 쓰는 고객사들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면서 "니치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허 배상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라고 말했다. 1심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니치아가 '파리협약'을 내세워 기세를 꺾지 않을 경우 길게는 최고 3년까지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해도 서울반도체는 절대 유리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니치아가 항소심까지 끌고 간다 해도 최소한 2심 판결까지 국내 시장에서 서울반도체는 운신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당장 니치아의 특허 자체가 무효화된 상황이어서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특허침해 금지 소송도 서울반도체쪽에 기술 가능성이 크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법원에 계류중인 특허침해 소송은 물론 해외에서의 판결도 서울반도체가 유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한다"면서 "해외 법원들도 다른 나라에서의 판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